

LUX HUMANITAS

VOL.17. 2014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대학의 핵심가치 강화하는 경희
- 03 경희의 미래 건설, 'Space21' 사업 본격 추진
- 05 대학과 사회가 소통하는 문화복지 공간
- 06 "대학의 미래상과 핵심가치 어우러진 대학다운 대학"

FOCUS

- 09 경희의 상징, UI 개편 ①
- 10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 발표
- 12 탁월한 연구력 바탕, 대형 국책과제 연속 수주
- 14 세계 학계 선도하는 경희의 탁월한 연구

TODAY

- 16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 17 2013 국가고객만족도 사립대 2위
- 18 의료원 노조, 임금 인상분 50% 발전기금 기부
- 19 KOICA 국제개발 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 선정
- 20 산골 초등학교 소녀, 40년 만에 감사의 마음 전해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휴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34

KYUNG HEE UNIVERSITY

대학의 핵심가치 강화하는 경희

개교 65주년을 맞는 2014년, 경희는 대학의 근본에 관해 성찰하며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한다. 교육과 연구, 실천, 인프라, 전문행정과 복지 등 지난 7년간 대학 전 영역에 걸친 혁신으로 이룬 다양한 성과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근본 사명은 무엇보다 학술적 탁월성으로 인류와 문명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연구·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해왔다. 이 같은 철학과 교육이념, 학술과 실천의 융합이 '새로운 명문'의 조건이다.

지난해에도 경희는 교육과 연구에서 세계 수준의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구사회봉사단(GSC)을 중심으로 지구적 사회공헌을 활발히 전개했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소통과 화합'의 경희정신으로 행정적·재정적 혁신을 추진했다. 이 같은 성취 위에서, 경희는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며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경희의 미래 건설, 'Space21' 사업 본격 추진

2016년 1학기 완공 목표, 각종 인허가 및 건축허가 절차 진행
서울·국제캠퍼스 사업비 1,751억원, 재정 안정성 고려한 재정계획도 수립



교시탑(오른쪽 아래)에서 신축될 글로벌타워(왼쪽 원통형 건물) 사이의 건물 배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서울캠퍼스 'Space21' 조감도.

‘**학**술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이 2016년 1학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캠퍼스는 2013년 인허가 첫 단계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서울시(동대문구)에 접수, 심의를 진행했다. 국제캠퍼스는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위해 계획설계를 변경·검토 중이며, 공과대학관과 종합체육관의 입면설계를 완료했다. 양 캠퍼스는 2014년 7~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인허가 첫 단계 2013년 완료

서울캠퍼스는 지난해 8월 28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접수해 12월 27일 변경결정을 승인받아, 1월 2일 서울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됐다. 이에 앞서 12월 2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2월 11일 완료됐으며,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타 대학의 경우, 서울시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고시 받는 데 평균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경희대는 4개월 만에 변경결정 고시를 받아 인허가 첫 단계를 2~3개월 단축했다. 이는 예정 일정에 맞춰 인허가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

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인허가를 접수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서울시 요구사항을 제출 도면 등에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도 서울캠퍼스는 2014년 7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접수하고, 이 안이 승인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면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평가도 3개월 이상 걸린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건축허가 순으로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공간 구성 확정 위한 구성원 소통 완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접수하기 위해 계획설계를 완료한 서울캠퍼스는 중간설계를 진행 중이다.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과정에서 구성원과 함께 협의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 내용을 보완하는 최종 건축계획 단

계다. 설계 업체는 지난해 11월 15일 선정했다.

서울캠퍼스는 지속적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간 구성을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12월 16일 한의과대학, 17일 이과대학·간호과학대학 구성원들과 중간설계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과대학 구성원과의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실시설계가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캠퍼스는 중간설계 단계에서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Space21'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앞으로 서울캠퍼스는 2014년 5~6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6~7월에는 건축허가와 공사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캠퍼스, 건축허가 변경 신청 추진

국제캠퍼스는 캠퍼스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축허가가 2010년에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실험연구동, LMO 온실 등 일부 신축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며,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된 계획을 반영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구성원과의 소통이 일부 마무리된 국제캠퍼스는 구성원 협의를 거쳐 중간설계를 완료한 후, 용인시청에 인허가를 접수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캠퍼스는 계획설계를 변경·검토 중이다. 2월 말까지 계획설계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성을 확정해 중간설계에 착수, 4월 중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접수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시 각종 영향평가를 6월까지 완료할

'Space21' 사업 개요

구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사업 면적	Space21	73,840m ²	사업계획 수정 중	
	공공기숙사	19,335m ²		
	계	93,175m ²		
주요 건물	신축	한의과대학관, 이과대학관, 간호과학대학관, 글로벌타워, 글로벌광장, 공공기숙사	신축	공과대학관 종합체육관
			개보수	외국어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서울캠퍼스는 'Space21'과 공공기숙사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 면적 등은 구성원 소통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획이다. 8월에는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는 공과대학 신축 예정 부지가 기존 야구장 위치로 확정됨에 따라 야구장, 축구·럭비장 등 옥외체육시설 공사를 진행해 2013년 8월 완료했다. 이로 인해 본공사 착공 전 전체 공사 기간 중 5~6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창의적 교육과 연구 활동의 터전이 될 'Space21'을 구축하면서 경희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캠퍼스 834억원, 국제캠퍼스 916억 8,000여만원(토지매입비 141억 8,000만원 포함)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학 자체 재정사업으로 5년 거치, 13년 상환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지출은 2019년부터 발생한다.



서울캠퍼스 글로벌광장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국제캠퍼스 공과대학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대학과 사회가 소통하는 문화복지 공간

경희의료원·청운관 사이,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 '전면플라자' 건립 추진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 의지 담아, 경희암병원 개원과 함께 2015년 완공



경희의료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과 청운관 사이의 공간에 들어설 '전면플라자'는 경희의 역사성·상징성을 지닌 건물로, 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구성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경희의료원과 경희대 청운관 사이에 구성원과 환자,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 '전면플라자'(가칭)가 건립된다.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북카페·기념품점·레스토랑·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2015년 3월 완공 예정인 '전면플라자'는 같은 시기에 개원하는 경희암병원과 함께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전면플라자 신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희암병원 개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공간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둘째, 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구성원에게 휴식·문화·복지를 제공하고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통해 대학의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학 정문(등용문) 바로 옆에 위치한 전면플라자 부지는 1953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한 경희의 제1기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추진된 현장으로서 역사성을 지닌다. 또한 학생·교수·직원 간의 소통과 만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이뤄지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 경희의료원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창조적 제안을 적극 수렴해 건물 명칭과 공간 활용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면플라자 계획 단계에서도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7월과 10월 총학생회, 교수의회, 직원 대표, 노

동조합 대표, 경희의료원 교직원과 노동조합 대표 등을 대상으로 건립 목적과 건축 규모, 일정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8~9월에는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가번영회 구성원을 만나 전면플라자 신축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0년 발표된 '의료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면플라자 건립은 경희암병원 신축 계획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암병원은 경희의료원 전면 좌측에, 전면플라자는 우측에 각각 들어선다. 전면플라자 건축비는 운영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15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아 충당하고, 남은 임대료는 암병원 건립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희암병원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인문학·예술·체육 분야가 융합된 치유 프로그램을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연구기관이다. 암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면플라자와 암병원 건립은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등 종합체제를 갖춘 경희 의학계열과 의료기관의 도약 발전을 알리는 상징적 사업이다. 또한 의료원과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소통과 나눔, 화합과 창조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미래상과 핵심가치 어우러진 대학다운 미래대학 만들 것”

조인원 총장, '소통과 공감' 기조 위에서 직접 소통하고 총괄하는 체제 운영



조인원 총장은 전 구성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대학주보>와 VOU 등 학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직접 소통을 통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2013년 12월 2일, 경희의 전 구성원에게 조인원 총장 서신이 이메일로 발송됐다. 서신에는 캠퍼스 건설계획, 대학평가, 재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담겨 있었다.

경희는 지난해 8월 23일 광릉캠퍼스에서 열린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논의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 첫 단계로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대책팀 구성 등을 통해 건설·평가·재정뿐 아니라 행정편제·학사제도·인사제도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재검토한 뒤, 12월 18일 대학평의원회 5차 회의에서 교육·연구·행정·재정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담은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 확충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10~11쪽 참조)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2016년 1학기 내 완공”

총장 서신은 그 내용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과정의 하나였다. 서신에서 조인원 총장은 “현안에 대한 구성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총장이 직접 소통하고 총괄하는 체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책을 찾아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6일 대학주보와 VOU 등 학내 언론과 인터뷰하고, 12월 11일에는 2014학년도 총학생회를 이끌어

갈 학생 대표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조인원 총장은 건설, 평가, 재정, 소통, 대학 운영과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조인원 총장은 건설과 관련해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은 당초 예정됐던 대로, 2016년 1학기 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해 인허가 첫 단계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국제캠퍼스는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위해 건물 입면도를 설계 중이다. 현재 공과대학관과 종합체육관 입면도 설계가 완료됐다. 양 캠퍼스는 2014년 7~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pace21’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계획도 수립됐다. 경희는 5년 거치, 13년 상환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13년 동안 사업비를 상환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부족한 연구 및 실험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분석을 마쳤으며, 올해부터 개보수 계획을 세워 공간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핵심가치 강화를 통해 경희의 위상 제고할 것”

대학평가에 대해 조인원 총장은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일률

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대학평가는 구성원의 사기, 학생 취업, 우수 교원 초빙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홀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조인원 총장은 “그간 주력해 온 대학의 근본과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노력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평가와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는 지난 7년간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며 교육·연구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구성원의 긍지와 포부를 고양할 수 있는 제도, 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인원 총장은 “행정 면에서도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하는 철학과 기초를 더욱 강화해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문화, 긍지와 포부를 느끼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뒤, “대학은 구성원의 학술 발전, 사회 기여를 향한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교육·연구·실천의 장이며, 그 장에서 구성원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5년까지 제도·관행 개선해 지출구조 최적화”

재정과 관련해 조인원 총장은 “예산 수입과 집행 차이로 인해 2013학년도 수입·지출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설명한 뒤, “신속히 예산 관리를 위한 효율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는 8년 전부터 ‘편성한 예산을 남겨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비윤리적 행정은 하지 않는다’, ‘적정 적립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예산 운영철학을 견지해왔다. 이 같은 철학에 따라, 2011학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 일부를 차기년도에 집행하고 교육·연구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이월금으로 인해 증액된 2012학년도 예산을 토대로 2013학년도 예산이 편성·집행되면서 차질이 발생,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

2013학년도 예산 조정은 대학기관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이뤄졌고, 그밖의 필요한 지출은 가용기금과 법인 법정전출금 등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조인원 총장은 “2014학년도부터는 현실적인 재정 확충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균형 예산을 편성해 재정구조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 경희가 견지해온 윤리적 예산 운영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단기·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 학내 제반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지출구조를 적정화하고, 2016년부터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해 교육, 연구, 장학금, 구성원 복지 등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의료기관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개교 65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생각하는 대학의 근본

‘Magnolia 2013’ 총장 인사말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경희가족 송년회 ‘Magnolia 2013’ 인사말에서 조인원 총장은 ‘대학의 근본’에 관해 더 깊이 성찰하며 교육·연구·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을 이루고, 2014년 개교 65주년을 계기로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사말 첫머리에서 조인원 총장은 새로 구성된 총학생회 대표들과 직접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등록금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2년 전 체결한 ‘경희 구성원 미래협약’의 핵심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학문화이며, 구성원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선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상기시킨 뒤,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이런 전통과 함께, 대학의 근본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면서 ‘대학의 문화’와 학생들의 ‘영예제도’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다. “몇 점 차이로 진급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의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한 후에 이어지는 학점 위주의 영예와 보상. 그런 제도와 문화 속에 과열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한 뒤, “고등교육의 존재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 가지 명료한 사실은 대학이 개인과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학술의 전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점, 더 나은 제도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식견과 소양, 시민성과 전문성을 쌓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의 근본에 관해 숙고해야 할 또 다른 주제로, 조인원 총장은 ‘대학의 영예제도’를 들었다. “국내 대학들은 경쟁적 학문 풍토 속에서 ‘경쟁적 우월’ 위주의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쟁에 편중된 학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근본 소명은 학문의 깊이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학문적 깊이는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학문은 ‘경쟁(競爭)’보다는 ‘수신(修身)’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인사말은 ‘학문적 열정’에 관한 주제로 이어졌다. “지난 5월, 해외 대학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80대 초반의 원로교수님을 특별강연에 초청했지만 ‘올해는 아프리카 생태계 탐사계획이 있어 부득이 방문하지 못한다’는 답이 왔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만년의 대작 출판, 학술 연구를 위한 오지 탐사를 위해 학문적 열정을 불사르는 학자의 모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학문의 끝없는 여정을 향해 정진하는 교수진. 그런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더 나은 자신과 사회, 세계를 꿈꾸는 제자. 또 그런 학문적 열정을 성심껏 지원하는 대학행정.” 조인원 총장은 바로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희는 그간 대학의 근본가치 강화를 위한 도전을 거듭하고, 그 위에 더 나은 문명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왔다”면서 “개교 65주년을 맞아, 그 가치와 열정을 세계와 공유했으면 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강화”

조인원 총장은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 평가, 재정 이외에도 행정편제, 학사제도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대학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학내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편제와 관련,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균등하게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2개의 독립부서를 양 캠퍼스에 두면서 행정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한 뒤,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균형발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책부서 슬림화, 유사 보직의 기능 통합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09년 자율운영을 도입하면서 구축한 부총장·행정 부처장 중심의 책임행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주요 대학의 행정편제 검토 등을 통해 경희 특유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조인원 총장은 말했다. 학사제도 역시 “국내외 대학 사례를 연구해 경희만의 최적화 모델을 찾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계적·민주적 대학 운영으로 소통 확대”

경희는 그간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통한 소통, 회의록 공개, 서신, 면담, 간행물, 공지문 등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대학 운영에 관한 사안을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 위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경희는 이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도 그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했다. 조인원 총장은 “대학행정발전TF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여러 분야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적인 조정을 거치면 교육, 연구, 장학금, 구성원 복지 등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구성원

참여 속에 당면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는 구성원과의 소통 창구로 대학평의위원회와 같은 대학의 공식 기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인원 총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술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희가 선도적으로 구성한 대학평의위원회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구성원과 좀 더 친근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겠다”고 전했다.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국내 모든 사립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희는 법 개정 약 2년 전부터 국내 사립대학 중 가장 먼저 대학평의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구성한 바 있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의적 결합으로 경희의 목표 이루자”

지난 연말, 구성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조인원 총장은 “구성원이 원하는 대학의 미래상과 대학의 근본 소명, 핵심가치가 어우러진 대학을 만들어가겠다”는 대학 운영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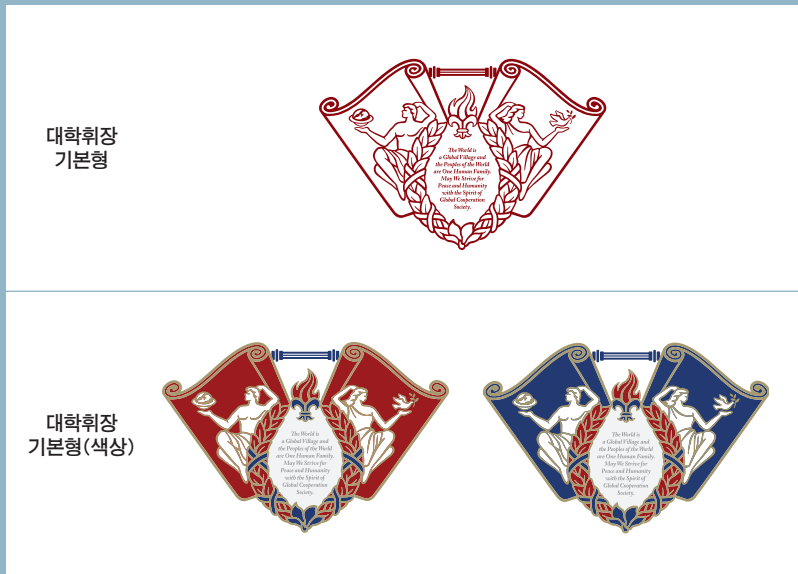
2014년 5월 18일, 개교 65주년을 맞는 경희는 더 나은 세계와 문명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학술을 선도하고, 학술의 공적 실천을 지향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사명이자 대학의 책무인 교육·연구·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적인 미래대학’을 향한 목표는 계속된다”면서 “그 바탕이 되는 구성원의 학술적 열정과 의지, 포부에 대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 성취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문화와 재정적 여건을 함께 힘차게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조인원 총장은 2014학년도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들과 교내식당에서 직접 만나 '2014 경희 희망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희의 상징, UI 개편 ①

새로운 대학휘장, 평화복지대학원 부조물 모티브
장기적으로 경희학원 전체 UI 통일 계획



경희의 새로운 대학휘장(사진)은 기본형에 이어 응용형이 개발 중이다.

경희대학교가 UI(University Identity) 개발을 통해 통일성 있는 상징체계를 확립했다. 기존 심벌마크(교표)가 담고 있던 창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더 나은 지구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상을 표상한 대학휘장(University Seal)을 선보였다.

경희의 새로운 휘장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과 평화복지대학원 로비에 설치한 부조물을 모티브로 한다.

상호 협력의 인류사회 염원하는 경희 정신 표현

경희는 개교 직후부터 평화와 인류애를

표상한 지구, 월계수 이미지에 문자 '대학(大學)'을 결합한 심벌마크를 사용해왔다. 이 심벌마크는 유엔 휘장의 기본 틀을 이어받아 디자인했다. 그러나 유엔 측의 문제제기로 국제적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개편이 필요해졌다.

2007년 7월, UI 개발을 시작한 경희는 이념, 역사, 전통과 함께 비전을 반영해 2010년 3월 새로운 UI를 선보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 문화와 정체성 연구, 구성원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대학 휘장 기본형과 활용형을 디자인해 올해 2월 휘장을 비롯해 심벌마크, 워드마크, 캐릭터마크를 포함하는 UI를 최종 발표했다. 휘장은 대학 본연의 책무인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미의 '책', 인류의 평등을 나타내는 '남·여', 창학이념을 상징하는 '월계관·비둘기·지구', 미래대학을 선도하는 선구자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햇볕' 등의 요소로 디자인됐다. 월계관에 쓰인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휘장은 상호 협력하는 이상적인 인류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경희 정신을 담고 있다. 색상은 대학 고유색인 레드를 주조색으로 하고, 경희 이념의 핵심인 '학술과 평화'를 보조색인 블루로 상징화했다.

장기적으로 경희는 경희학원 산하 모든 유관 기관의 UI를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대학휘장을 기본으로 의료기관의 HI(Hospital Identity)를 개발하고 있다. 대학휘장 활용형 등의 UI 개편 내용은 향후 발행될 뉴스레터에서 다룰 예정이다.

국문 홈페이지 개편, 소통 창구 역할 활성화

사용자 편의성 고려해 정보 접근성·전달력 높여

경희대학교 국문 홈페이지(www.khu.ac.kr)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하는 경희의 미래상을 알리고 창조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개편, 1월 6일 오픈했다. 새 국문 홈페이지는 2014년 개교 65주년을 계기로, 대학의 핵심 가치를 더욱 강

화해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를 학생,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 대내외 구성원과 나누는 소통 창구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국문 홈페이지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에 초점을 맞췄다. '웹

표준'을 준수해 사용자의 접속 환경과 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콘텐츠 구성 역시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 맵을 재구성하고, 각 페이지에는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성을 지원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 발표

‘대학다운 미래대학’ 위한 대학 운영 발전 방안 제시
 조인원 총장, “대학 핵심가치 강화하며 구성원 공감하는 발전 방안 수립”



경희대학교는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0일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발표했다.

경희대학교가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이하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 발전계획안은 실무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으로,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2월 20일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발표된 발전계획안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전계획안의 수립 목적은 그간 경희가 주력해온 대학의 근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하며 교육·연구·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을 이뤄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12월 18일 ‘2013학년도 대학평의원회 5차 회의’에서 “대학 운영 발전 방안은 대학의 역사와 전통, 핵심가

치를 견지하는 방향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희는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학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해왔다”면서 “교육·연구·실천의 근본을 더욱 강화하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대학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전계획안 수립에 앞서 경희는 지난해 11월 ‘지속가능한 대학행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2013학년도 대학평의원회 5차 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을 보고한 것은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대학평의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술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기구로,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한다. 이날 구성원은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

안이 경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대학 행정·재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학 현안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TF를 만들어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

대학 운영 전 영역의 창조적 혁신 방안

발전계획안은 다섯 가지 철학과 기초 위에 수립됐다. 첫째,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핵심가치를 강화한다. 둘째, 고등교육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합리적 예산 및 정책 조정으로 재정 안정화를 구현한다. 넷째, 대학 행정 구조의 적정화를 위한 교육·연구·행정·재정 분야별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 같은 철학과 기초로 수립된 발전계획안에는 거버넌스, 직원규모, 자율운영제도,

책임시수, 강좌규모, 교원규모, 연구지원제도, 장학제도, 학생 총원, 예산제도, 재원확충 등 대학 운영 전 영역의 창조적 혁신 방안이 포함된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교원·학생·강좌 적정화로 교육 질 제고

교육 분야의 핵심은 교원, 학생, 강좌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임교원확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석학급 우수교원을 총원하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와 강좌 규모를 조정한다. 그간 경희는 대학의 핵심가치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교원 수를 확대하고, 전임교수의 책임시수를 줄여왔다. 교원 수는 최근 5년간(2008~2013년) 269명 늘어 교원확보율이 103.55%에 달한다. 학생 수는 동일한 3만 2,000명 규모인 데 비해, 교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임교수의 연간 책임시수는 2007년 18시간에서 2008년 15시간, 2011년 12시간으로 줄여왔다.

2015학년도부터 강의를 전담하는 정교수의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5시간으로 조정하고,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정교수는 기존과 동일한 12시간의 연간 책임시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좌 규모는 최적화 기획 및 연구,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술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강좌 개설 수를 확대해온 경희는 2013년 8,243강좌를 운영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비교하면, 평균 강좌비율 적용 시 경희의 강좌 수는 1,007개가 많은 수준이다.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온라인 강좌 확대, 중·대형 강좌 확대 등으로 전체 강좌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학문 분야별 특성 고려한 방향으로

연구활동지원제도 개선

연구 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연구 성과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연구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경희의 국제 논문 게재 장려금은 편당 평균 263만원, 국내 논문 게재 장려금은 편당 250만원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국제 논문 게재 장려금으로 편당 평균 100~200만원, 국내 논문 게재 장려금으로 편당 30~5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제 논문 게재 장려금의 경우, 학문 분야별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해 단순 저널의 인용지수(IF·Impact Factor)를 측정해 평가에서 JCR 분야별 IF 순위를 반영한 차등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내 논문 게재 장려금은 편당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후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논문 게재 장려금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연구 결과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장려가 아닌 탁월한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가 선행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의 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 분야별 연구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정책원 중심 정책·예산 기능 통합

행정 분야는 정책과 예산 기능을 통합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행정 편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간소화된 행정 절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인력이 재배치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3월부터 미래정책원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 기능이 통합된다. 미래정책원 산하의 기획예산팀은 양 캠퍼스에 편성돼 정책과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거교적 연구·분석,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법률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 편제의 골자는 양 캠퍼스 간 행정 효율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부서 및 유사 기능 부서를 통합해 슬림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희는 서울과 국제캠퍼스를 본·분교 개념을 넘어, 독립 캠퍼스로

균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부서가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많은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부서당 직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양 캠퍼스가 법적, 실질적 통합을 이룬 만큼 효율적인 행정 편제 개편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서 통합을 비롯해 학부와 대학원 통합, 업무영역으로 나뉜 기능형 부총장제 도입 등 행정 편제는 미래정책원, 인사팀, 노동조합, 교내외 전문가와의 소통 속에 2015년 2월까지 시행과제를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학술 면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도입한 자율운영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기획예산팀에서 자율운영 관련 업무의 지원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과대학(원)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3월부터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안이다. 이후에도 실무 TF를 통해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2단계 자율운영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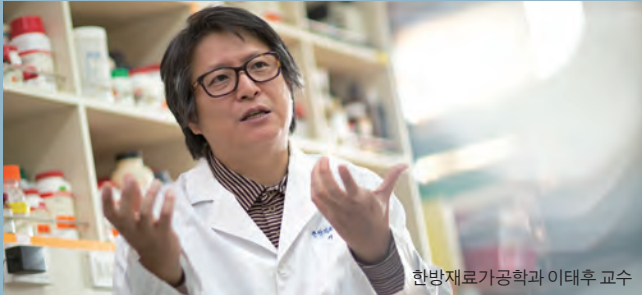
대학의 핵심가치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 기초 유지

재정 분야는 크게 균형예산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 6년간 경희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교원 채용과 학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2008~2012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누적 순지출 현황(건설투자 제외)을 분석한 결과, 경희는 보수와 기타 학생경비 항목의 증가율이 평균인 29.2%, 49.6%보다 높은 38.5%, 79.9%로 조사됐다. 이 같은 투자는 대학의 위상 제고와 연구력 증진,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등으로 학술문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거교적 차원의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창학이념과 대학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수입을 창출, 지출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탁월한 연구력 바탕, 대형 국책과제 연속 수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5개 대형 연구과제 선정
천연물 신약, 줄기세포 및 면역조절, 모바일 클라우드, 건축 공법 등 다양한 분야



한방재료가공학과 이태후 교수



컴퓨터공학과 허의남 교수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상호 교수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선정 천연물의약 소재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천연물의약 소재 개발 및 표준화 지원사업단(단장: 한방재료가공학과 이태후 교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단은 2018년 8월까지 5년간 75억원을 지원받아 경희대의 한의학·천연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천연물의약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표준화 기술을 지원, 의약산업계의 천연물 신약 제품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한방재료가공학과·한의과대·생명공학원 등 경희대 교수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동아제약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5년간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

사업단은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천연물의약 소재 개발과 표준화, 시생

산, 안정성 시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태후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희대 한의학·천연물 연구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개발 장비 등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학생 실습과 교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선정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 개소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ITRC)’에 선정된 경희대학교가 10월 1일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Real-time Mobile Cloud Research Center, RmCRC)’를 개소했다. ITRC는 대학과 기업체의 공동연구를 통해 IT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개소한 ‘RmCRC’는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으

로, 경희대가 주관하며 KAIST, 서울대, SK C&C 등 5개 대학, 8개 기업이 참여한다.

‘RmCRC’는 전공지식과 기술은 물론 인문학 교육을 제공해 지(知) 테크형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허의남 센터장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특허를 내고, 이를 기술이전으로 연결해 상용화에 성공하면 지식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이 부로 이어지는 지(知) 테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클라우드를 이용한 기본적인 앱 기술은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특화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2013년 6억 4,000만원, 2014년부터 3년간 8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된다. 2016년 목표 성과의 50% 이상을 달성하면 추가로 2년간 연구 지원비를 받게 된다.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 선정

줄기세포 이용한 전문의약품 개발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줄기세포 촉진제 substance-P의 전문의약품 개발’ 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은 경희가 2008년 설립한 ‘의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문화를 강화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첫 결실이다.

경희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임상지식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통해 환자에게 질병 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 수준의 연구 기반 병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책임자인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의 출발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교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실험실, 제도적 지원 등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경희는 의과학연구원을 통해 코웍(Co-work)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산하

에 융복합연구소·재생의학연구소 오믹스(Omics) 등을 설립해 기초와 임상 간 중개융합연구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희는 기초연구를 통해 보유 중인 체내 물질 ‘substance-P’의 지식재산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손영숙 교수팀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substance-P’가 골수 중배엽 줄기세포의 가동화를 촉진시켜 손상 조직을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를 2009년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

‘2013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신장이식 면역조절기술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 연구팀의 ‘이식 거부반응 및 장기생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신장이식 면역조절 기술 개발’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도 하반기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신기술 개발 분야) 공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6년간 약

4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람은 저마다 유전자가 달라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거부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데, 환자마다 면역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다름에도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양의 면역억제제가 처방돼 부작용이 있었다.

이상호 교수 연구팀은 신장이식 환자의 고통과 입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역조절기술 개발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비침습적 거부반응 진단 바이오마커(bio-marker)를 개발해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조기 진단하고 억제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바이오마커란 정상이나 병적인 상태를 구분하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체 표지물질을 말한다.

이상호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2년 ‘신장 손상 보호 및 신조직 재생을 위한 Substance-P/가동화 줄기세포의 유용성 평가’ 연구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5년간 10억원 지원).

‘학술경희’의 미래를 향한 창조적 도전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2·3기’ 지난해 11월 21일 발사 성공 자체 기술력과 국제협력으로 위성 제작, 달-지구 탐사 및 연구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에 탑재된 입자 검출기 ‘스타인(STEIN)’은 경희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경희대학교가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2기(KHUSAT-1)와 3기(KHUSAT-2)를 러시아 야스니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2012년 9월 14일

미국 반덴버그에서 시네마 1기를 발사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두 차례의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21세기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고 있는 경희의 학문적 열정과 탁월성, 담대한 도전정신, 높아진 국내외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네마(CINEMA·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and Magnetometer)는 경희대학교가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셋·Cubesat) 3기를 개발해 추진하는 우주탐사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탐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고, 초소형 인공위성 3기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또한 시네마에 탑재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자 검출기 ‘스타인(STEIN)’은 경희의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시네마는 태양풍에 의한 지구 영향과 지구 근접 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고,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중성입자 분포 측정과 우주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됐다.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4cm, 무게 3.1kg으로 초소형 위성이지만,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 고도의 관측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총 3기의 다중 위성인 시네마는 입체적 관측으로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며, 경희는 이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융복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희는 2008년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선정을 계기로 시네마 개발에 착수했다. ‘달궤도 우주탐사 연구’ 과제(책임자: 이동훈 교수)로 WCU 우주·국방 분야 제1유형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경희는 2009년 9월 일반대학원에 우주탐사학과를 신설했다. WCU 제1유형은 전공학과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5년간 총 14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세계 학계 선도하는 경희의 탁월한 연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상혁 교수, 미국근관치료학회 주관 국제공동연구과제 선정
생물학과 신기순·의과대학 최원재 교수, <네이처> 자매지에 논문 게재



박상혁 교수(왼쪽), 신기순 교수(가운데), 최원재 교수(오른쪽)가 세계 학계로부터 경희의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치의학전문대학원·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박상혁 교수 연구팀이 미국근관치료학회(American Associations of Endodontists, AAE)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이번에 수행하는 연구과제 주제는 'Cell Based Approaches in Endodontic Regeneration'으로, 앞으로 6년간 총 160만 달러가 지원된다.

박상혁 교수, 치아신경 재생치료법 개발

박상혁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의성 교수, 미국 UCLA 치과대학 Mo Kang(모 강) 교수 등과 함께 치수(치아신경) 재생치료에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을 비롯, 한국과 미국의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연구에 한국 연구팀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치아우식(충치)으로 치수가 감염됐을 때 행해지는 치수재생치료는 치수를 제거하고 구타페르카(gutta-percha)라는 고무 같은 물질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박상혁 교수는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식해 자연치아를 유지하면서 치수를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치료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치과 근관(신경)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박상혁 교수는 “환자 본인의 치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임상연구 경험과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상혁 교수는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은 이번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경희대와 미국 연구진 간 교류가 확대돼 향후 공동 융복합 연구와 논문, 전문서적 공동

저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기순 교수, 불안장애 재발 원인 규명

생물학과 신기순 교수 연구팀이 불안장애가 빈번히 재발하는 분자적 기전을 밝혀내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2013년 10월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세계 최고 권위지 <네이처>의 대표적 자매지다. 논문 제목은 'GluA1 phosphorylation at serine 831 in the lateral amygdala is required for fear renewal'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치료는 환자를 공포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공포 대상에 대한 감정 기억을 소거하거나 억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쉽게 불안장애가 재발한

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료 연구가 절실했다.

쥐를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 신기순 교수 연구팀은 불안장애를 겪은 뒤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에서 뇌 편도체 속 분자 수용체인 암파(AMPA) 수용체의 한 소단위체 내부에서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이 불안장애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안장애 재발 원인 규명에 성공한 신기순 교수는 “노출치료와 함께 GluA1 단백질 인산화 원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불안장애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기순 교수는 계속해서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뇌 작용 기전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최석우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최원재 교수, 암치료 위한 후속연구 진행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최원재 교수 연구팀이 세포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전을 밝혀내고 연구 논문을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가 발행하는 기초의학 분야 학술지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세포 사멸과 분화)> 2013

년 11월 2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Cyclophilin B is involved in p300-mediated degradation of CHOP in tumor cell adaptation to hypoxia(저산소증 적응 종양세포 속의 CHOP 분해·조절에 관여하는 시클로필린 B)’이다.

세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멸 과정을 거쳐 죽게 되며, 세포 사멸에는 CHOP(Protein-Homologous Protein) 분자가 중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원재 교수 연구팀은 단백질 발현에 필요한 인자인 CYPB(Cyclophilin B)가 CHOP를 분해·조절해 세포가 스트레스 저항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실험에서 일반 세포가 살 수 없는 저산소 분압 상태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든 후, CYPB를 인위적으로 발현시켰을 때 그 양이 많을수록 세포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1년 CYPB가 치매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의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국제학술지인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에 논문을 게재한 최원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CYPB의 세포 보호 작용기전을 확실히 규명했다”고 말했다.

최원재 교수는 “암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죽지 않는 이유 또한 CYPB 때문이었다”고 설명한 뒤, “처음 항암제를 투여할 때 일부 암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멸하지만 나머지 암세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 CYPB를 이용해 저항력을 기른다”면서 “실제로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CYPB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연구팀의 발견은 암·치매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재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스트레스 조절 기전을 이용한 실질적인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후속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최원재 교수를 비롯해 강인숙, 김성수, 하주현 교수와 생화학 분자생물학교실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응용화학과 ‘학부생 연구 인턴십’ 큰 성과

홍진표·이은정 학생,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 게재
박광희·최원훈 학생,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응용화학과 ‘학부생 연구 인턴십’에 참여한 홍진표 학생(왼쪽), 최원훈 학생(가운데), 박광희 학생(오른쪽).

응용화학과에서 운영 중인 ‘학부생 연구 인턴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인턴십에 참여한 재학생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고,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부생 연구 인턴십은 교수 실험실에서 세부심화전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대학원생과 동등한 연구 과정을 거친다.

홍진표(08학번), 이은정(09학번) 학생 연구팀은 SCIE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013년 9월 19일자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다.

홍진표 학생은 “세계적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류순민 교수의 지도 아래 나노재료 분광연구실 박민규(석사 4기), 이대응(석사 4기) 학생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최원훈(09학번) 학생과 박광희(10학번) 학생은 지난해 4월과 10월, 3,0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석한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 포스터를 발표, 2회 연속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최원훈 학생은 이민재 교수의 USP 생화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박광희 학생은 류순민 교수의 나노재료분광연구실에서 연구했다. 류순민 교수는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는 전문 과학자와 대학원생이 주를 이루는 대회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학부생이 우수포스터상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223명, 석사 1,401명, 학사 4,054명 배출
 조인원 총장, “인간의 책무를 다할 때, 더 큰 희망을 말할 수 있다”



2월 19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학사 4,054명, 석사 1,401명, 박사 223명이 졸업 학위를 받았다.

2013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동시에 거행됐다.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조인원 총장,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 등 경희가족 3,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제캠퍼스는 르네상스홀, 피스홀 등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2013학년도 학위취득자는 학사 4,054명, 석사 1,401명, 박사 223명, 특별과정 118명이다.

“인간의 문화세계를 이루려는 경희의 꿈이 졸업생들에게 힘이 되길”

조인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주어진 현실 너머 세계로의 탐색과 도전을 거듭해왔고, 끝없는 창조의 미래를 추구하던 사람이 인류의 변화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현실을 변화시킬 또 다른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고 말한 뒤, “경희가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현실에서 인간의 양심과 가치, 문화를 거듭 찾아 나서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것도 더 큰 미래를 향한 희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삶의 깊은 성찰은 뒤로한 채, 생존과 번영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한 조 총장은 “현대에 공존하는 두 가지 현실 ‘시대사조와 아성의 논리에 갇힌 현실,’ ‘인간과 우주, 미래로 열린 현실’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 몫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원 총장은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사유하고 행동하는 용기와 역량, 현실과 이상의 틈에서 열린 인간의 문화세계를 이루려는 경희의 꿈, 이 용기와 역량, 꿈과 희망이 졸업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희대에 입학하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졸업생 인터뷰 영상 ‘경희의 도전-사랑, 꿈, 희망’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김지수(평화복지대학원 11학번) 학생은 “경희대에 입학하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고, 꿈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래문명원 프로그램과 씨티-경희 NGO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내외 활동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를 전했다.

고아라(무용학과 석사과정 11학번) 학생은 “경희대학교에서 소속 발레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경희봉사단 기획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었다”며 “경희를 통해 무용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고객만족도’ 사립대 2위

교육·연구 지원 확대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NCSI 점수 꾸준히 상승, 1위와의 점수 차 4점으로 좁혀



경희는 지난 7년간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통해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해왔다.

경희대학교가 ‘2013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사립대학교 부문 2위를 차지했다. NCSI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2점 상승한 73점으로, 1위인 성균관대와의 점수 차가 4점으로 좁혀졌다.

지난 7년간 경희는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구성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NCSI 점수가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평가에서 경희는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고객기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등 모든 선행변수 점수가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적정성 평가를 반영한 고객인지가치 점수가 9점이나 상승하며 산업 평균(55점)을 크게 웃도는 72점을 기록했다.

경희의 고객인지가치 점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원과 소통하며 등록금 논의를 진행해온 경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반면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교육비가 2007년 725억 6,000만원에서 2012년 1,156억 5,400만원으로 1.6배 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275억 7,500만원에서 558억 4,200만원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구성원 만족도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모델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지수로 산출한다.

교육역량강화 성과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수도권 대형 사립대 1위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의 ‘2012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13년 11월 20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고려대(본교), 연세대(본교),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포함된 ‘수도권 1만명 이상 대형 사립대학’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희는 자체 연구·조사 기능을 활용해 학생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왔다.

2012년에는 현장연계 전공심화사업,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심화 아레테(Arete) 사업, 국제협력하게대학(Global Collaborative) 등을 운영했다. 아레테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2억 3,100만원을 지원받은 경희대는 이번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4억 7,6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인센티브는 단과대학 전공 심화와 특성화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경희 KLAS-OCW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계획이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학부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경희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성과평가와 2010년 계획평가 최우수대학, 2010년과 2011년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의료원 노조, 임금 인상분 50% 발전기금 기부

2014 임금협상·단체교섭, 양보와 배려 정신으로 '노사 상생'의 합의 이뤄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 이끌 경희암병원 건립 재원으로 출연



경희의료원 노사는 2014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임금을 2% 인상하고 인상분의 절반인 1%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이 '2014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분의 50%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냈다.

경희의료원은 직원들의 가계 부담과 사기를 고려해 임금을 총액 대비 2%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병원이 발전해야 구성원도 웃을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2%의 절반인 1%(약 11억원)를 기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노사협의회도 임금을 2% 인상하고 1%(약 6억원)를 병원 발전 재원으로 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는 경희정신”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노사가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의료원 경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 아름다운 상생”이라며 “어려운 병원 현실을 노사 모두 공감하고 어

려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번 노사 합의를 평가한 뒤,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경희의 가족 정신이자 노사문화”라고 강조했다.

노조 기부금은 경희의료원 암병원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임영진 원장은 “구성원의 헌신과 단합된 마음에 힘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문화복지시설과 암병원 건립, 연구중심병원 추진, 진료 외 수익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간 소통으로 '상생의 문화' 형성

“노사가 과정은 달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야 한다”고 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조은숙 지부장은 “경희의료원 노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단체교섭 시기뿐 아니라 1년 365일 노사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그동안

병원을 위해, 한 사람의 직원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꾸준히 고민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은숙 지부장은 “경희의료원 노조는 대학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사회봉사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경희의료원 노사는 의료원 발전을 위해 법인·대학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법인·대학·의료원이 발전을 모색하는 거교적 기구를 만들어 미래발전전략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지난 2010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을 새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구성원 소통에 더욱 힘써온 경희의료원 노사는 2012년 10월 단체교섭에서 그해 사립대 의료원 최초로 자율 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KOICA 국제개발 협력사업 선정

1차년도 사업, 캄보디아 현지 주민 자생력 키워
2차년도 사업 통해 지구적 실천모델 구축 사업 계속 추진



GSC는 지난 1년간 '농촌개발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차년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서 경희가 2차년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쯔응마을 농촌개발모델 개발사업'을 통해 2012년 12월 말부터 1차년도 사업을 전개해온 경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외 거점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피스 빌리지(Peace Village)' 구축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1차년도 사업이 경희대와 KOICA 주축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시범운영하는 단계였다면, 2차년도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 1차년도 사업을 심화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 경희의 농촌개발모델을 정착화하는 단계다.

1차년도에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되던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전환하고, 도서대출 시스템과 중학생

자조조직인 북클럽 활동을 확대해 복합문화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1차년도에 설립한 마을기업의 경우, 정수된 식수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과 유통망 구축 등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익금 관리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기업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경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 효과에 중점을 뒀다. 교육을 통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마을주민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피스 빌리지'에서 경희의 가치를 지키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외단기봉사단을 파견해 '피스 빌리지'를 통한 경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지구사회봉사단·
국제대학 봉사동아리
'Volunteer KIC' 선정

경희대학교가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대학과 대학생동아리 2개 부문의 교육기부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 부문에서는 지구사회봉사단(GSC), 대학생동아리 부문에서는 국제캠퍼스 국제대학 봉사동아리 'Volunteer KIC'가 선정됐다.

그동안 경희는 교육과 연구의 근본 역할을 강화하며 대학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탁월한 학술적 성취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로 이어지는 실천적 노력으로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대학의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거교적 사회공헌기구 지구사회봉사단(GSC)을 창설, 고등교육을 통해 인류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지구적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이다. 지구사회봉사단은 현재 서울 관악구의 토요일쓰기 멘토링, 지식멘토링, 적정기술학생기획단 운영, KOICA 사업, 몽골 및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으로 대학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거교적 차원의 사회공헌과 함께, 경희는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동아리 부문 수상자인 'Volunteer KIC'는 대학의 지원을 받아 지역 및 국제봉사활동을 실천하는 학생자치 봉사단이다.

2011년 3월 28일 창단한 'Volunteer KIC'는 그동안 어린이 영어교실, 다문화 어린이 한국문화 체험, 밝은 등굣길 벽화 그리기, 무료급식, 서농중학교 멘토링, 라오스 해외봉사 활동 등을 펼쳐왔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생동아리, 대학, 개인 등에 수여되는 상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다. 2013년에는 대학 10개교, 대학생동아리 10곳 등 총 60여 곳이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산골 초등학교 소녀 40년 만에 감사의 마음 전해

“경희 봉사활동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 추억 갖게 돼”



교육·연구와 함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해온 경희대학교는 1956년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등을 전개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경희대학교 봉사 동아리 ‘바인(VINE)’ 앞으로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장학금 500만원이 전달됐다. 주인공은 40여 년 전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김금자 씨. 그는 감

사편지를 통해 “바인의 봉사활동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몇년간 조금씩 모은 500만원을 기부한다”고 말했다.

봉사동아리 ‘바인’은 1970년대에 하계·동계방학 중 강원도 산골 초등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시 학생들은 동네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율동, 글짓기 등을 가르쳤다. 봉사단은 아동글짓기대회를 주최해 시상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복장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김금자 씨는 “텔레비전과 전화도 없던 강원도 산골에서 경희대 학생들 덕에 방학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고, 어른이 된 지금도 아동글짓기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꺼내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면서 “그 학생들은 당시 나에게 한없이 크고 위대한 선생님이었다”고 회상했다.

“비포장도로에 숙소조차 변변치 못했고, 나무로 뿔감을 때던 시골을 방학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공부를 가르쳐주고 노래와 글짓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움은 어린 소녀에게 큰 여운을 남겨줬다”고 밝힌 그는 “봉사단 학생들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인’ 회장인 김치현(정보디스플레이학과 12학번) 학생은 “봉사를 통해 도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봉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봉사의 더 큰 의미를 찾고, 기부자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동문·졸업생·강사 등 경희구성원 기부

윤도준·김은자 동문, 정외과·약학대 동문, 간호대 졸업생 등 참여

윤도준(의학과 72학번) 동문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 의학과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의학과 발전기금과 장학금 총액은 3억 5,540만원에 달한다. 의과대학은 2008년부터 ‘윤도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김은자(영어영문학과 59학번) 동문은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장학금으로 2만 5,000달러(약 2,700만원)를 기부했다. 김은자 동문은 지

난해 6월 23년간 교수로 재직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베이커스필드에서 명예교수상을 수상했다.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중국인 강사 자오자(趙佳) 씨가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자오자 씨는 2002년 국비 장학생으로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연수한 인연을 계기로 경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석·박사 학위를 마쳤다.

한편, 정치외교학과 동문과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선구자의 밤’ 행사에서 학과 발전기금 1억

4,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이견수(60학번) 동문은 1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졸업 30주년을 맞는 약학과 79학번 동문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약학대학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서 매그놀리아 스토리 기금을 통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약학대학은 2009년 75학번 동�회 기부를 시작으로 졸업 30주년을 맞는 학번의 동�회 이름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간호과학대학 2013학년도 졸업생들도 장학금 1,355만원을 기부했다. 간호과학대학은 2004년부터 졸업생들이 교수들에게 열어주던 사은회 비용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교수들이 졸업생 환송회를 열어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부총장·미래위원회 사무총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취임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이승한 교수와 의과대학 의학과 이태원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광영태 교수가 국제부총장·미래위원회 사무총장·강
동경희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승한 신임 국제부총장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경희대 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 화학과장, 입학관리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이태원 신임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경희대 의과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희대학교병원 신장내과장, 장기이식센터장, 대한신장학회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곽영태 신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동경희대병원 QI(질향상) 부장과 심장혈관센터장을 역임했다. 전문 분야는 관상동맥수술, 심장판막외과, 하지정맥류, 폐외과, 식도외과, 흉강경외과, 일반흉부외과 등이다.

그 외 14명 보직 임명

▷대학원장 송재홍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치과대학장(겸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장) 박영국 ▷언론정보대학원장 강태완 ▷평화복지대학원장 권기봉 ▷공공대학원장 김태영 ▷약학대학장 류종훈 ▷서울 교무처장 이동수 ▷서울 학생지원처장 겸 서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서울 취업진로지원처장 김양균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겸 전자정보대학장 이수열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장 겸 예술·디자인대학장 장미경 ▷응용과학대학장 안광현 ▷국제 입학관리처장 김진상 ▷국제 국제교류처장 신은희 ▷국제 사무처장 겸 연습림장 김병권

이건수 동문, 매그놀리아 특별공로상 수상



이건수(정치외교학과 60학번, (주)동아일렉콤 회장) 동문이 지난해 12월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매그놀리아(Magnolia) 2013'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이 건수 동문은 그간 17억원(약정 22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중섭 국제교육원장, 목련상 수상



김중섭 국제교육원장이 '매그놀리아(Magnolia) 2013'에서 목련상(실천 부문)을 수상했다. 목련상은 경희가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된다. 국제교육원을 세계 최고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 김중섭 원장은 경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2013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6개 팀 수상

2013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경희대 학생들이 특허청장상(1명)과 우수상(2팀), 장려상(3팀)을 수상했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이

대회는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황은상(유전공학과 08학번) 학생은 선행기술조사 부문과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특허청장상(2위)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임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허영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허영 석좌교수는 1959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2년 경희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독일 본대학교, 바이로이트대학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택 교수, 화학산업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가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5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수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화학산업의 날에는 화학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산·학·연 화학산업인에게 표창과 포상이 수여된다. 대학교수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용택 교수는 정·하수처리 및 해수담수화 공정에 필요한 차세대 분리막(Membrane) 소재 개발과 공정 연구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물 산업 기술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훈 교수 연구팀, 봉독약침의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 효과 밝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 연구팀이 봉독약침의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 효과를 밝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대체보완의학저널)> 2013년 10월 5일자 온라인판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이상훈 교수팀은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신경통에 시달린 70대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봉독약침 요법을 시행한 결과, 5주 만에 증상이 크게 완화된 것을 발견했다.

김진규 학생,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김진규(국어국문학과 08학번) 학생이 '2014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 <대화>는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나무옹이 속의 죽은 새에 대한 기억으로 써내려간 시다. 김진규 학생은 자신이 본 광경과 당시 느낀 감정을 시로 옮기며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면에 간직해온 소통이라는 주제를 꺼내 섞어냈다. 그는 주로 관찰 속에서 시상을 얻고, 본 바를 솔직하게 담아낸 시를 쓰고 있다.

이효빈 학생,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남자 금메달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이효빈(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학생이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41초642를 기록한 이효빈 학생은 캐나다, 중국,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효빈 학생은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41초383으로 대회 신기록도 세웠다.

김은영 학생, 201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은영(환경조경디자인학과 10학번) 학생이 12월 18일 '2013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김은영 학생은 유럽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화훼장식 분야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해 7월 독일국제기능올림픽 화훼장식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을 가진 미래인재 발굴·격려와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특강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서울시민대학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서울시장 특강 '미래도시, 미래대학-새로운 즐거움(樂)과 배움(學)을 찾아서'를 개최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 경험과 서울시의 행정 경험을 공유한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강연자로 참석), '인문학적 성찰의 힘과 시민력이 살아 있는 따뜻한 소통의 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에는 경희대 학생 900여명, 서울시민대학 수강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자(孔子)의 첫 구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처럼 학문의 즐거움은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인간의 내적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움,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한 박 시장은 그간 펼쳐온 사람 중심의 인본 행정, 소통의 참여행정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한 뒤, "이 같은 행정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인문학으로 성장한 시민력은 혁신 행정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013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

2013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 장학증서 전달식이 12월 10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서울캠퍼스 학부생 38명, 대학원생 8명, 국제캠퍼스 학부생 3명 등 49명으로, 장학금 규모는 총 5,310만 1,000원이었다. 이날 고예찬(경영학부 12학번) 학생은 '나눔이야기' 발표를 통해 "경희대

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행복하다"면서 "선뜻 기부에 나서준 여러 기부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해나 또한 후배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경희대 교화인목련이 담고 있는 공동체정신을 이어가는 소액기부 캠페인으로, 동문을 주축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경희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과 기업까지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재학생은 미래에 후배에게 기부할 것을 약속해 경희의 기부문화 전통을 이어간다.

2013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빈곤국 아동을 위한 '2013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행사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대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교류하는 'CISS 버디 프로그램' 참여 학생, 평소 나눔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등 86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 한국인 학생 1명씩 팀을 이뤘다.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는 직접 그림을 그린 운동화를 통해 빈곤국 아동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는 빈곤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길러주는 나눔 실천운동이다. 참여 학생들은 저마다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무늬가



없는 흰 운동화에 그림을 그리고, 카드에 편지를 써 운동화 끈에 매달았다. 운동화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아동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제3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제3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행사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한 글쓰기 축제, 1부 서평·에세이 백일장, 2부 명사 초청 특강으로 진행된다. 제3회 글쓰기의 날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서평과 에세이 중 한 부문을 선택하고 2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대상은 에세이 부문에 참여한 이재준(간호학과 13학번) 학생이 수상했다. 이재준 학생은 "글쓰기 수업을 통해 주제 이상의 것, 예를 들어 자신만의 생각, 신념, 교훈 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 배움이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와 법무부가 시행하는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평가 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2014년 3월부터 3년이며, 매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법무부 불법체류율, 유학생 의료보험가입률 등 평가지표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의료보험 가입률,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의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미래대학의 길' 특강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미래대학의 길' 특강이 열렸다. 강연자로 초청된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미래대학의

모습을 전망하고, 대학교육의 미래와 한국 대학의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오세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인구 과잉, 환경오염 등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전과 다른 아이디어와 개념, 정보,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지식의 융합, 통섭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학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글로벌 리더십, 기초학문, 과학적 기초지식, 학제적 소양, 배움의 공동체적 환경 등을 꼽았다.



씨티은행, NGO 인턴십 후원

제8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의 후원금과 지원 협약식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씨티은행이 기금을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해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NGO의 역할과 기능, NGO 단체 업무현황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2014년 2월 14일까지 전국 75개 NGO 단체에 파견돼 다양한 현장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2013 ACE 융합교육 포럼

교육사업추진단과 융합교육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캠퍼스 법학관 401호 국제회의실에서 '융합교육, 왜? 무엇? 어떻게?'라는 주제로 201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융합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안재욱 부총장, 지은림 교육사업추진단장, 허균영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성균관대학교 조광수 교수, 서울대학교 김범수 교수,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 정지훈 교수 등 교내외 90여 명이 참석해 융합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모색했다.



경희대 융합교육지원센터는 학문 간 교류와 통합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 11월 교육사업추진단 산하에 설립됐다. ACE 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며 2013년 가을부터 융합교육 추진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4 경희 지적 학교 개최

'2014 경희 지적 학교'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집중강좌코스라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경희대학교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 슬라보예 지젝 교수는 '누가 미래정치를 말하는가?'를 주제로, 철학, 정신분석학, 정치학에 걸친 자신의 사상을 현대사회와 접목시킨 내용을 강연했다. 지젝 교수는 "내부에 속한 자와 외부에 배제된 자, 두 그룹 간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가 아니라 법의 조항 하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등 작은 부분부터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은 성공의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젝은 '2014 경희 지적 학교'에 이어 올해 여름 또 한 번 경희대에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섭 선생 문학비, 경희대에 기증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작가 고(故) 여심 주요섭(餘心 朱耀燮, 1902~1972) 선생의 문학비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고창문화동산으로 이전됐다. 선생의 묘소가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면서 유족들은 선생이 교수로 재직하던 경희대에 문학비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가로 1.6m, 세로 1.1m 크기의 문학비 전면에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내용 일부가, 뒷면에는 선생의 일생과 문학비 건립에 대한 소개글이 새겨져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상

경희대학교병원이 제9차 퇴원손상 심층조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병원은 170여 개 병원 중 자료 충실도와 오류율에서 최고 성적을 받으며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퇴원손상 심층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의 퇴원환자 의무기록을 토대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통계를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2013 경희 몰래산타 페스티벌

2013 경희 몰래산타 페스티벌(이하 몰래산타)이 지난해 12월 24일 펼쳐졌다. 몰래산타에 참여한 300여 명의 학생은 이날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Flash Mob)을 진행한 후, 종각역에서 시청역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이웃사랑과 나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울광장에서 다시 한번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이후 7~8명 내외로 조를 이룬 학생들은 동대문구 지역의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2013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3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해 11월 18일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됐다. 음악대학 기악과 관현전공 3, 4학년 학생 81명으로 구성된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날 벨라 바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마장조 작품 119번(Piano Concert No.3 in E Major, Sz.119), 파블로 데 사라스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집시들의 노래) 작품 20번(Zigeunerweisen Op.20),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다단조 작품 68번(Symphony No.1 in C Minor Op.68)을 연주했다.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55년 창단한 이후 매 학기 열리는 정기 연주회 외에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경희 칸타타 공연, 개교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며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4년 1월 31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4년 1월 현재 24억 5,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성 금액 : 2,450,524,206원

-참여 인원 : 2,476명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17호

2014년은 경희가 개교 6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7년간 경희는 교육, 연구, 실전, 행정과 재정, 인프라 등 대학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도약 발전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위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며 '다학제'의 길을 선도해나가는 것이 개교 65주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경희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다짐일 것입니다.

이번호 뉴스레터는 '대학의 핵심가치 강화하는 경희'를 주제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의 기본 사명은 학술적 탁월성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학술적 성취, 지구적 차원의 사회공헌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실체가 대학의 핵심가치이며, 이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호 특집은 그간의 성취를 돌아보며 경희의 역량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제17호 2014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